



New Asian Wave

IN GLOBAL CINEMA

아시아 영화의 특색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영화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런 전개 과정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부상한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성립과 맞닿아 있다. <조이 럭 클럽>을 필두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이르는 일련의 변모는 아시아 영화의 의미에 대한 근본 질문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태평양 시대가 열어낸 아시아 영화의 변화는 유럽의 시네필 운동과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숭한 굴곡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의 부흥과 침체, 인도 볼리우드와 중국의 SF영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질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영화의 약진은 아시아 영화의 문제를 아시아라는 지역성의 경계에 얽매어 고찰하는 평범한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 과거의 영화사를 돌아보는 회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아시아 영화를 실시간으로 고찰할 필요가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3년 한국문학과영상학회 봄 학술대회는 지금, 현재 생동 중인 아시아 영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아시아 영화의 양상과 정의를 어떻게 묘파해야 할지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고자 한다.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NRF-2020S1A5B8102066).

# PROGRAM

시간	내용			사회
13:00-13:10	개회사: 문학과영상학회 회장 강우성 환영사: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 연구소 소장 김이석			박문정 (한국외대)
13:10-13:50	기조 발표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영화	안지혜 (부산영상위원회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강우성 (서울대)
13:50-14:20	토론: 김채희(부산대)			
14:20-14:40	쉬는 시간			
14:40-15:00	디아스포라의 시간성: 새로운 아시아 서사의 등장		김소혜(고려대)	최영진 (중앙대)
15:00-15:20	여명의 눈동자들		장수희(동아대)	
15:20-15:50	토론: 김무규(부경대), 이시성(부산대)			
15:50-16:10	쉬는 시간			
16:10-16:30	글로벌 OTT 속 아시아인의 서구적 정당성 획득하기와 드라마, <파친코>의 트랜스 퍼시픽(trans-pacific)한 가능성과 한계		안민화(동의대)	이택광 (경희대)
16:30-16:50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댓웬스>의 시각 정체성과 서사 정체성		권승태(한국방송통신대)	
16:50-17:20	토론: 조정민(부경대), 박문정(한국외대)			
17:20-17:40	연구윤리 교육			박문정 (한국외대)
	이사회 및 폐회사: 회장 강우성(서울대)			

NEW ASIAN WAVE IN  
GLOBAL  
CINEMA